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Her Story

Cruise Tour Conductor

전혜연, 그녀를 알면 크루즈가 보인다!

크루즈 여행이 패키지, 배당, FTT(개별여행)에 이어 새로운 여행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크루즈 전문 인솔자 전혜연 씨는 그 흐름의 맨 앞에 선 기수(旗手)다. '편안하고 행복한 크루즈'가 새겨진 깃발을 높이 세우고 향해 중이다. 어마어마한 배와 드넓은 바다가 모두 그녀의 깃발 아래 놓여 있다. 사진/김주형 기자 · 글/장성배 기자

지난 11월 14일, 지중해 출장을 하루 앞둔 베테랑 크루즈 인솔자는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미 20회가 넘는 크루즈 인솔 경험이 있지만 출발 전 심려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떠나기 며칠 전에 일정과 승객 명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번 여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현재 국내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는 30명 안팎이다. 쉐타크루즈 소속인 전혜연 씨는 그 가운데 자부심과 승객 호응도 면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작은 체구에 목소리도 나긋나긋해 첫인상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만 누구보다 강한 열정이 깃들어 있다.

"손님 일행과 처음 만나면 어머니들은 걱정부터 하세요. '사람보다 트렁크가 더 크네,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병아리 아니냐'고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물론, 배 안에서 필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후에는 병아리가 아니라 엄마 닭이라고 부르시죠."

크루즈 인솔자는 공항에서 출발해 선박 여행을 마친 후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여정을 책임진다. 알뜰이 병아리를 품듯 승객에게서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자라다. 승객들이 잠든 시각에도 다음날 일정에 관한 뉴스레터를 만드느라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다. 매일 영문으로 발행되는 크루즈 내 소식지에서, 한국인 승객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다시 한글로 작성한다. 여기에는 선내 편의시설과 다음날 진행될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가 담긴다. 크루즈 소식지를

꼼꼼히 검토해 승객들의 취향과 컨디션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시해준다.

"기름에 걸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에 능숙지 못한 어머니셨는데 스피커에서 무조건 '에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을 구입하시게 됐어요. 나중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결제 내역서가 방으로 전달돼 아시게 됐죠.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매니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해 드렸습니다."

크루즈 내 시설과 식당 음식은 대부분 무료지만 일부 음료, 스파와 마사지 등은 유료 서비스이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무원이나 인솔자에게 무료 서비스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크루즈는 호텔, 이동 수단, 테마파크를 한데 모아놓은 공간으로 편의·위락 시설만 해도 수십 가지다. 스파, 수영장, 농구장, 나이트 클럽, 카지노, 조깅 트랙, 극장, 공연장, 레스토랑, 바, 라운지, 면세점 등이 갖춰져 있다. 최신 선박에는 인공 파도 타기, 아이스링크, 암벽 등반, 스크린 골프연습장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의 크루즈 내 시설 이용과 이벤트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 영어가 능통하다고 해도 카테일파티나 왈츠 클래스 등 서구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스러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참여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이상 창피하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선장이 주최하는 갈라 디너 또는 카테일 파티에도 턱서도나 드레





스가 없다면 한복을 가져가시면 돼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독특해서 더 환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찬 식당 에티켓이 대표적이다. 정찬 식당에서 김치나 킷라면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꺼내놓거나 주류 반입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한사코 소주를 갖고 들어가는 승객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정찬 음식이 나오기 전 한국에서 가져온 밑반찬으로 미리 상을 차리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식당 승무원들이 참 난감했죠. 간혹, 드레스 코드가 제시된 정찬 식사에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승무원이 옷을 바꿔 입고 오라는 권유를 하는데 그럴 때는 선실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뷔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물 찾아 떠나는 행복한 항해

전혜연 씨가 크루즈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여름이다. 재충전과 도약을 위해 미국에서 몇 달간 자유를 만끽한 후 2007년 7월에 국내 최대 크루즈 여행사인 선타크루즈에



뫼을 실었다.

“일반 여행사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유럽 출장을 다니와 공항에서 옷만 갈아입고 새 팀을 맡아 다시 미국 출장을 떠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자신감과 열정만 갖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인솔자는 여행을 좋아하고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미국에 체류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갔다. ‘오페라의 유령’, ‘미녀와 야수’, ‘레미제라블’ 등 브로드웨이 공연을 거의 다 보았고 뉴욕에서 LA까지 횡단여행도 감행했다. 주변의 우러가 컸지만 미 대륙 횡단은 틀에 박힌 관광이 아닌 새로운 여행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반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보니 크루즈가 뜨고 있었다. 앞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얼마 후 섀타크루즈 전속 인솔자로 20여 명의 관광객과 함께 알래스카로 첫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첫 출장은 어떻게 1주일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느라 배 안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첫 출장은 크루즈의 매력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연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었다. 대형 라스베이거스 쇼부터 라이브 밴드 공연, 영화 상영, 코미디 쇼를 손님들과 같이 보며 즐길 수 있었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20여 회 크루즈에 올랐다. 지역은 알래스카, 카리브해, 지중해, 북유럽, 하와이 등 다양했다.

“크루즈 상품마다 일정과 배의 분위기가 달라요. 알래스카는 백년해로한 노부부가 선실 발코니에서 빙하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하와이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죠. 지중해는 부모님 환갑 기념 선물로 좋고, 카리브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베테랑 인솔자는 어느 배가 자신의 나이와 취향, 여행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물론, 어느 배를 선택하는 열린 마음으로 여행을 즐겨야 한다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어릴 적 소풍날 보물찾기를 기억해보세요. 마음을 열면 배 안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답니다. 저는 손님들이 가슴마다 가득가득 보물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



Cruise Tour Conductor

전혜연 씨의 크루즈 여행 팁

지중해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튀니지 등 지중해에 위치한 세계적 관광지들을 둘러볼 수 있다. 선사 때 따라 바르셀로나, 나폴리, 베네치아 등에서 출항하며 기항지마다 한국인 가이드가 안내를 맡는다. 14일 일정의 경우, 출발·도착지를 포함해 10여 곳의 기항지에서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다. 단,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고 기항지 투어가 아침 일찍 시작돼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알래스카 미국 시애틀이나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항한다. 여유 있는 실버 세대가 승객의 주류를 이루기에 선사들은 선실 인테리어와 음식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특급 호텔 이상의 재료와 메뉴가 식도락의 기쁨을 안겨준다. 단, 자연경관 관광 위주여서 젊은 층 승객은 다소 지루할 수도 있다.

카리브해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항한다. 허니문 여행객 등 젊은 층 승객과 30~40대 가족 여행객이 주류를 이룬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운항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선박인 리버티 호(16만급)는 아이스링크와 암벽 등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저메이카의 정열적인 음악, 독특한 멕시코 문화, 다양한 해양 스포츠 등이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미국, 유럽 승객들은 스쿠버다이빙 장비까지 챙겨들고 승선한다.

하와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항한다. 대부분 프리 스타일 크루즈로 정찬 식당에도 번거없이 입고 들어갈 수 있다. 기항지마다 골프 리조트가 위치해 골프 애호가에게는 최고의 크루즈로 통한다.

[▲ top](#)